

대한항공, 中 어린이들에 '꿈의 도서실' 선물

10년째 중국 향촌지역에 도서실 기증

대한항공이 중국 어린이들에게 열 번째 '꿈의 도서실'을 선물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9일 중국 절강성 항저우시 통루현 통루 창업학교에서 고희호 중국지역본부장, 한재혁 주중 한국문화원 원장, 시정부 인사 등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꿈의 도서실'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 2010년부터 10년째 이어 온 '꿈의 도서실'은 중국의 향촌 지역 학교에 도서실을 만들고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책 읽을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중국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꿈의 도서실' 행사는 한·중 문화교류를 활발히 이끌어 온 주중 한국문화원과 공동 행사로 진행됐으며 중국지역에서 대



지난달 29일 '꿈의 도서실' 기증 행사에 참석한 고희호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뒷줄 오른쪽 네번째), 한재혁 주중 한국문화원장(뒷줄 오른쪽 세번째)이 관계자 및 학생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항공

한항공과 협력 중인 알리바바그룹의 페이지 여행사 임직원도 참여했다. 대한항공이 올해 도서실을 기증한 통루창업학교는 항저우시에서 서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008년 개교 후 현재 790여명

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재학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항공은 새롭게 꾸민 도서실을 공개했으며 도서실에 비치할 용품과 도서 등을 기증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SK가 쌓은 신약 축적 시간



기지 수첩

이 세 경
(유통&라이프부)

신약주권을 향한 무모한 도전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 SK그룹이 1993년 불모지이던 제약산업에 발을 들이고, 더욱 생소한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이들의 성공을 낙관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7년이 지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탄생했다. 국내 기업이 후보물질을 발굴은 물론 임상, 판매 허가 신청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끌고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낸 첫 신약이다.

취재 과정에서, SK의 성과보다는 묵묵히 견뎌온 지난 시간들에 더 눈길이 갔다. 엑스코프리의 개발은 총 18년이 걸렸고, 수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최 회장은 2001년부터 바이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바이오 사업부를 지주 아래 품은 채 꾸준히 투자를 이어왔다. SK가 개발한 첫 뇌전증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는 임상 1상을 마치고 기술수출했지만 출시를 앞두고 FDA

승인이 좌절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 실패를 겪고 난 후 연구개발 조직을 더욱 강화했다.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실패 없이는 배울수 없는 레슨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 회장의 목표는 결국 기술수출 없이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신약을 만들어냈다. 판매도 직접 맡는다.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가 임상 3상 단계이던 3년 전부터 신약 마케팅 전략을 세웠고, 미국 전역에 판매 채널을 확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매일매일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조정우 사장이 엑스코프리 개발에 대한 소회를 문자 답한 말이다. SK그룹에 지난 27년은 길고도 지루한 축적의 시간이었다. 셀수없이 많은 실패가 거듭됐지만, 단 한번의 성공을 장담하기도 어려웠다. 늘 부연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을거라 추측한다. 하지만 묵묵히 견뎌온 시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은 그간의 설움을 씻고 그토록 염원하던 신약주권을 확보했다. SK와 엑스코프리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seilee@metroseoul.co.kr

LGU+, 유튜브 스타 '펭수' AR로 만난다

EBS 대표연습생 '펭수'를 증강현실(AR) 콘텐츠로 만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EBS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EBS의 '자이언트 펭' (이하 펭수) 캐릭터와 번개맨, 번개걸 등 키즈캐릭터를 5G 기반의 증강현실(AR) 서비스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펭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지난 4월 남극에서 건너온 EBS 연습생으로

나이는 10살, 키는 210cm인 자이언트 펭귄이다. '자이언트 펭TV'로 EBS1TV와 유튜브에서 데뷔했고, 7개월 만에 137개의 공식 영상으로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다.

LG유플러스는 U+AR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펭수 주제곡에 맞춰 댄스, 요술, 송, 국민체조하는 펭수, 펭수의 태권도 시범 등 펭수 콘텐츠를 약 10여종을 360도 3D



모델들이 EBS 대표연습생 펭수 AR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AR 영상으로 서비스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2월 2일 (음 11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준다. 48년생 걸모양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지 마라. 60년생 한번 잃은 신용은 평생 가니 작은 약속도 잘 지켜라. 72년생 함께하는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84년생 언제나 계획하에 일을 시작.



37년생 가족은 항상 내 편이다. 49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야라. 61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73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된다. 85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서 지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38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내낸다. 50년생 스쳐 간 인연이 혼란을 준다. 62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74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본다. 86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해야.



39년생 유래 상채 통쾌한 하루. 5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투자를 시작. 63년생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른다. 75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87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40년생 치과 방문을 미루지 마라. 52년생 향기 없는 꽃의 유혹에 정신이 팔린다. 64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76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88년생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41년생 자식에게 징검다리라 된다. 5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언행을 조심. 65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77년생 안부를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89년생 직장에서 좋은 일로 뜻밖의 이동수가 있다.



42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다. 54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손가락만 올려놓는다. 66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78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큰 조력자. 90년생 주변 상황을 잘 보고 현명하게 행동.



43년생 자존심을 나를 지켜주는 힘. 55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니 소회제 준비. 67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79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91년생 다른 사람 시선도 의식해야 한다.



44년생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56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8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픈 하루. 80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92년생 불필요한 친절은 오히려 해가 된다.



45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점점 더 느껴진다. 57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유리한 날. 6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81년생 새로운 정보에 학습을 확인. 93년생 기회가 와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다.



46년생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라. 58년생 한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하다. 70년생 용띠, 닭띠와의 거래가 손조롭게 이루어진다. 82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94년생 지치지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쓰자.



47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59년생 일거리가 들어오니 반갑다. 7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83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95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9	6			
8			7					
	5	9		7	2			
4					1			
	2	8		1	5			
1								3
	6	9		8	4			
			7					3
1	4		5	8				

	1	6	8		7	2	3	
7			1		9			8
	9	8				7	5	
5								2
1		7	6		2	5		4
	2			3				7
			1					9
				4	5			
				8				

스도쿠 정답								
4	9	8	6	5	2	7	1	3
6	1	8	9	7	4	8	2	5
2	5	7	1	6	9	3	4	8
8	6	2	5	4	7	9	1	8
7	4	5	1	9	8	2	6	3
8	1	9	2	6	4	5	7	3
1	2	4	8	7	6	5	3	9
5	7	1	3	9	2	8	4	6
9	8	6	7	1	5	4	2	3

문제 제공= 보스



김상회의四季

나는 부자일까?

직장인에게 설문 조사를 해보니 40억 이상이면 부자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부자들에게 물어보니 총액 기준으로 67억 이상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보았다. 한국에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 32만 명이다. 누구나 부자가 되어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한다. 돈이라는 게 원한다고 나에게 오는 게 아니어서 속을 태우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에 집착하지만 가장 큰 집착을 보이는 건 돈이다.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자기 팔자에 없는 돈을 좇아다니다가 망신살에 빠지는 사람을 보는 게 드물지 않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서울에 산다면 부자라고 하기 힘들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이니 집 한 채 사면 별로 돈이 남지 않는다. 그가 지방 소도시에 산다면 문제는 다르다. 집을 사고도 돈이 수중에 있으니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어디서 어떤 소비를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필요한 돈이 다르다. 그렇기에 부자의 기준은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 일반 직장인들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이 8억이라고 한다. 부자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은 돈이다.

이런 큰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팔자타령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한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며 팔자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이다. 보통 사람들은 재력 쌓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돈에 매달려 스스로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재산을 쌓기 힘들다면 돈에 대한 지혜를 쌓아야 한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도 돈이 없다고 괴로워하면 그게 바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다. 재산의 총액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내 재산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38호